

어서 박문수 걷던 옛길 ... 초록에 흠뻑 취했다



사진제공=무주군

구천동 어사길 탐방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숲나들길을 걷고 있다.

봄이다.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는 세상을 온통 연둣빛으로 물들이고, 짙은 손가락을 펴듯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꽃들은 겨우내 굳어있던 마음을 간지럽힌다.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 이름 모를 꽃들과 지저귀는 새, 비경 사이사이 솔한 걸음들이 봄바람에 살랑이며 '이리 오라!' 손짓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의 구천동계곡은 설악산의 천불동계곡과 지리산의 칠선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계곡의 하나로, 그 품에 안긴 '어서길'은 백미 중의 백미로 꼽힌다. 이곳의 절경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철마다 탐방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등산과 산책이 모두 가능해 연인, 친구는 물론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탐방객들이 대거 몰리는 숲속 명소가 떠오르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울창한 숲이 드리운 그늘과 정아하게 갈 길을 재촉하는 계곡물소리 덕에 흐르는 땀조차도 시원하다. 그야말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인 셈. 특히 올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할인 등 유용한 혜택을 장려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사로잡는 비경

구천동 어사길은 구천동 33경 중 16경 인월담에서 32경 백련사까지 4.9km 구간이다. 어서 박문수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어사길은 인월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2016년 복원을 시작해 '숲나들길(1구간)'과 '청류계(2구간)', '치유길(3구간)', '하늘길(4구간)'로 2020년 완성을 했다. 옛사람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오솔길과 들계단은 그대로 살리고 인위적인 구조물은 최소화해 숲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걸으면 유유자적 그 재미가 쏠쏠하다.

◇걷기에는 그만인 숲나들길

어서길의 초입부터 인월담까지 이어진 '숲나들길'은 경사가 완만해 가벼운 마음으로 탐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름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길이다. 습지 생물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야생화가 피고 지는 곳이라 구천동 어사길의 다양한 색을 느낄 수 있다. 숲나들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바로 자연 습지 교육장. 자연관찰로를 따라 형성된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계곡 사이사이 수줍게 얼굴을 내민 꽃들이 객과 눈을 맞춘다. 3-4월에는 복수초와 너도바람꽃, 4-5월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핀다. 숲나들길의 거리는 0.8km정도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어서 박문수의 덕을 담은 청류길

16경 인월담~32경 백련사 4.9km 굽이굽이 펼쳐지는 숲의 청아함 걷는 내내 계곡 물 흐르는 소리

생명·녹음·에너지·치유 기운 충만 4계절 내내 원시림의 아름다움 간직

인월담을 시작으로 2구간인 청류길이 펼쳐진다. 어서 박문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청류길은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다연대를 지나 무주 태생 김남관 대령이 극락정도를 꾸며주며 만든 불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월담까지 이어진다. 특히 인월담과 비파담 사이에는 계곡을 조망하기 좋은 길들이 자리하고 있어 마음을 사로잡는다. 구천동 33경 중 6곳(16-21경)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아끼지 않은 계곡과 참나무, 소나무 어우러진 숲이 자아내는 경치가 일품. 말을 잊게 만든다. 어사길 최고의 구간 중 하나로 꼽히는 청류길은 0.8km로 지나는데 20여 분이 걸린다.

◇원시림의 기운 받는 치유길

치유길은 구월담에서 금포탄, 호탄암, 청류계를 거쳐 안심대로 이어지는 어사길의 3구간으로 경사가 꽤나 심한 곳이다. 산길에서 오솔길로 바뀌는 구간도 있고 1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즐비해 원시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봄에는 생명의 기운을, 여름에는 녹음의 편안함을, 가을에는 충만한 에너지, 겨울에는 치유의 기운을 얻을 수 있어 이름도 치유길이다. 거리는 1.7km로 30여 분이 걸리는데 초반에는 걷기 무난하지만 중간 이후부터 돌로 된 경사 구간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해탈의 경지 하늘길

이곳은 구천동 어사길 복원 구간 중 가장 최근에 개통한 구간으로 쉼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어사길의 마지막 구간인 하늘길은 구천동과 백련사를 오고 가던 행인들이 건넌 안심대에서 시작된다. 신앙담, 명경담, 구천폭포, 백련담, 연화폭, 이속대, 백련사로 이어지며 완만한 경사가 지속되는데 목재 데크와 야자 매트 덕분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곳곳에 피어있는 이야기꽃도 흥미롭다. 매월당 김시습이 관공을 피해 안심하며 쉬었다는 '안심대'가 그렇고,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추며 심신을 가다듬었다는 '명경담' 또한 그러하며, 속세와 연을 끊고 깨우침을 얻는다는 '이속대'가 그러하니 가만히 떠올리며 걷다 보면 어느새 목격지 백련사에 닿는다. (1.6km, 약 30분 소요) /전북일보=김효종 기자

전북 무주 구천동 어사길

어서길에 펼쳐지는 비경

구천동 33경은 1경 라제동문에서 33경 향적봉까지 구간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을 찾아 이름붙인 것으로 어사길에는 16경 인월담에서 32경인 백련사가 자리하고 있다.

▲인월담(16경)=일사대와 파회와 어깨를 겨루는 구천동 3대 명소 중 한 곳으로 신라 때 인월화상이 절을 짓고 수도하던 곳이라 해서 인월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반석위로 쏟아지는 폭포수가 소를 만들고 다시 바닥에 깔린 암반 위로 미끄러져 비단폭을 이룬다.

▲사자담(17경)=사자목에 살던 사자가 내려와 목욕을 즐기며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와 비파를 타며 놀았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청류동(18경)=안으로 호흡을 이룬 암반 위로 맑은 물이 얇게 깔려서 흐른다. 가을에 단풍이 절으면 그 물이 붉게 변해 주변 일대가 별천지가 된다.

▲비파담(19경)=비파 모양을 닮아 비파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옛날에 선녀들이 내려와 비파를 타며 놀았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다연대(20경)=비파담과 연계된 기암이다. 구천동을 참승하던 옛 선인들이 비파담으로 미끄러지는 옥류(玉流)에 감탄하고 차를 끓여 마시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었다는 명소다.

▲구월담(21경)=월령계곡과 백련사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합류하고 쏟아내는 폭포수가 담을 이룬 구월담은 형형색색의 암반이 맑은 물에 잠겨 있어 가을 단풍이

곱게 물 들면 더욱 아름답다.

▲금포탄(22경)=여울진 암반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심산유곡의 바람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 마치 탐금소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탄암(23경)=구천 계곡 중 유일하게 향적봉을 볼 수 있는 곳. 산대나무와 어우러진 경관이 아름답다. 산신의 명으로 특약을 구하려 가던 호랑이가 소에 빠져 100일 간 꼼짝 못하고 울부짖기만 했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청류계(24경)=호탄암에서 안심대까지 이어지는 1.1km 구간의 계곡이다. 울창한 수림과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이 비경을 이룬다.

▲안심대(25경)=구천동과 백련사를 오가는 행인들이 개울물을 안심하고 건너다니는 여울목이다. 기암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와 맑은 물이 아름다워 덕유산으로 가는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신양담(26경)=안심대에서 0.2km 지점에 있다. 속칭 새양골이라고도 부르는 신양담은 숲 터널로 이어진 구천계곡 중 유일하게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길 아래 기암과 맑은 담이 아름답다.

▲명경담(27경)=신양담에서 0.3km지점에 있다. 여울목에 잠긴 '물이 거울같이 맑다'하여 명경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백련담(29경)=구천폭포에서 0.2km 지점에 위치한 백련담은 연화폭을 거친 맑은 물이 담겨 못을 이루고 흘러간다.

▲백련사(32경)=덕유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 때 고찰로 덕유산 정상으로 오르는 탐방객들 휴식처로도 이름이 나았으며 가을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만산의 흥염이 일품. /전북일보=김효종 기자



청류동 계곡.

사진제공=무주군